

“한일 정상회담, 양국 합작한 참사”

민주 이낙연 전 대표, “한국, 강제징용 일방 타결로 그려져… 일본, 전방위 압박으로 오만 쏟아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22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며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이 맞지 않으면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다른 문제라도 민감한 뒤탈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고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의상은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드러내며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드러내며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드러내며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드러내며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드러내며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드러내며 쏟아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에서 열린 전라북도 반려동물산업 추진단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채수찬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과 연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행정, 전문기업체 대표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산업 추진위원회’를 위촉식을 갖고 하고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기소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 특혜 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대가로 용도 변경 혐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뒷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우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 이 대표가 7880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사)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8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옥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차 뇌물)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 등기를 정치적 이익에서 찾았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인회사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차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특화 비리”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날 27일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의혹

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만 10만원이라도 벌여준 것이 아니라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20억원 이상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는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0억을 벌였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급자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이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사진 왼쪽부터)백은중 후원회장, 안해욱 후보, 정대택 사무장

“정권심판이 이유” ‘줄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주를 후보, 출마 이유 밝혀

줄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알려진 무소속 안해욱 후보(74)가 4·5 전주를 재선거에 출마 이유를 김건희 단죄와 윤석열 탄핵이라고 밝혔다.

안해욱 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도가 고한인 제가 전주를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가슴소리는 김건희의 실체를 낱알이 밝히고 윤석열 친일매국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돼 출마하게 됐다고 밝힌 안 후보는 “저 안해욱에 대해서는 ‘안해욱IV’를 구독하면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되면 더 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제야당의 힘을 빌려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사정에는 (솔직히) 어렵다”며 “이 부분은 현지 사정이 밝은 시도위원, 정당 관계자 등과 소통해 지역 예산 확보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해욱 후보는 끝으로 성경을 인용, “개인 욕심이 1도 없는 저 안해욱이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라며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안날 회견장에는 정대택 선거사무장과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백은중 서울의소리 대표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우리 삼총사는 정치적 욕심은 없다. 다만 안 후보가 국회로 진출해 지금의 정권에 대한 의혹을 날마다 밝혀야 한다”면서 “이 정권을 빨리 끝장내기 위한 스피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어려울 땐 향토은행 고금리 땐 이자 장사”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5분 발언서 “전은, 고금리 유지하며 대출금리 인하에 ‘모르쇠’ 시, 시금고 선정시 상생금융 실적 높게 반영해야”



전주시가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향후 시금고 선정 평가시 금리 인하와 상생금융 실적

가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방은행 특성상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고 서민금융 지원이 활발하다. 서민금융을 제외한 전북은행의 대출금리는 10.12%로 타 지방은행에 비해 4.4%p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북은행은 이런 고금리를 바탕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예대마진으로 2,000억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며 “이것이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 장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비판했다.

특히 “어려울 땐 ‘향토은행’,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에 시금히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시금고 선정 평가 때 금리 인하와 상생금융 실적을 높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전주시에 촉구했다.

또 “전북은행은 도민이 1인주 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탄생한 지역은행이고,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전주시 금고를 도맡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점을 감안해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하라”

전주시의회, 송영진 시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정 부의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와 합리적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은 지난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신동진벼를 추가하고 2025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 중단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동진벼 매입 제한 등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퇴출 방침을 2026년

까지 유예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송 의원은 “10a(아르당 570kg 이상 소출의 벼 품종)를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농민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 철회와 함께 농민 의견 수렴, 대체 품종 선정 및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진벼는 오랜 연구를 통한 수량, 품질 향상으로 2022년 기준 전국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

또 전주 지역 쌀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도의회 환복위, 국외 정책연수 펼쳐

일본 삿포로·도쿄 등서 환경·복지분야 정책 벤치마킹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활용한 습지 공원으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해 공원 안내 DVD 시청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친화적인 관

광 명소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 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